

작품 내용

제 목	작가님 지키기
내 용	‘브런치’라는 스토리 플랫폼이 있다.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글쓰기 플랫폼인데 누구나 글을 쓸 수는 있으나 플랫폼에 노출을 시키려면 심사를 통해 작가로 선정이 되어야 타인에게 글을 보여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는 2020년부터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꾸준히 활동을 한 결과,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로 인정도 받고있고, 일부 글들은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서기도 했다. 주로 쓰는 주제는 전에 몸담았던 여행업에 대한 글과 난임 관련 글인데 두 주제는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여행사 사람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꽤 많은 글을 연재하던 중에 내가 쓴 글이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에 그대로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브런치에 올라가 있는 글은 당연히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블로그나 인스타 등에 올라가 있는 저작물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만들어낸 저작물은 별도의 저작권 관련 계약사항이 없는 한 생산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은 저작물이라 하고 다른 사람이 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46조에 따라 권리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고 협의된 이용방법 및 조건 하에서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그 블로그의 주인에게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다. 물론 저작권법 30조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미 그 블로그의 글이 네이버 메인에 노출된 상태라 이게 개인적으로 이용된 것이 맞는지, 원작자로선 복잡한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처음에는 ‘내 글이 그렇게 좋았나?’ 싶다가도 브런치는 본문 복사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 복사해서 붙인 것인지 의아스럽다가 ‘출처 링크도 밝히지 않고 글을 가져간 것은 무단 도용이 아닌가?’라는 분노까지 다양한 감정의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글에 ‘앞으로는 글을 퍼가도 되는지 의사를 먼저 물어봐 주시고 지금 글에는 출처를 밝혀달라’고 댓글을 달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었다. 내가 열심히 쓴 글을 그냥 복제하는 것에 대해 단순히 ‘내 글을 좋아해주시는 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하지만 상대방의 선의를 이해하기 이전에 내가 저 글 한 편을 쓰기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의 가치를 더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 짧은 글이라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품을 들여야 하는지는 글을 써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렇기에 창작자들의 노력을 지켜주려 저작권법이 있는 것이고.

고민하다 결국 네이버에 게시글 중단을 요청했고, 처리에 시간이 좀 걸리려나 했더니 다음날 바로 글이 사라졌다. 포털의 판단도 이 상황은 ‘저작권 침해’였던 것이다.

이 상황을 겪으면서 나조차 ‘내 글에 대해서 소유권과 저작권 개념을 너무 희미하게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포털에 올라오는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저작권은 그렇게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 왜 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의미를 대충 생각하고 있었을까. 내 글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유난 떠한다고 생각한 것은 아닌지.

무단으로 사용된 내 글을 발견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든 간에 내 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바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 왜 나는 애써 쓴 내 창작물에 대해 당당하지 못했던 것일까. 내 글이 유명한 작가들이 쓴 글의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예전에는 특정 루트를 통해 등단한 사람들에게만 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었으나, 이제는 글을 읽는 사람들보다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시대이고 그만큼 작가가 많아진 시대다.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작가이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창작물은 다 소중한 저작권을 갖는다. 그렇기에 ‘브런치’에서도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작가’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그 호칭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는 좀 더 당당하게 내 ‘작가님’을 지켜내고 싶어졌다. 등단하지 않았어도 뭐 어때? 내 글의 저작권은 소중한걸.